

#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의 성장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한지선\*\*

**초록** 본고는 한강 하류역과 경기 서해안 일대에 위치했던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의 성장 과정과 주변 정치체와의 관계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를 둘러싼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지역을 역사적 주체로 두는 시각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주목할 만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경기 서부 지역은 자연지형에 따라 김포·강화, 인천 북부, 인천 남부 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거점에는 분구묘를 조성한 지역정치체가 존재했다. 우선 김포 운양동유적과 인천 연희동유적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양 집단을 비교하고 경기 서부 지역 분구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포 운양동 유적은 2세기 중엽부터 대형 분구묘와 함께 금제이식, 다량의 철기류를 부장하며 경기 서부의 성장을 주도했다. 3세기 대에 접어들어 인천 연희동 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고분군이 경기 서부 지역에 형성되는 한편, 운양동 유적은 점차 쇠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철기 부장량은 감소하고 토기 부장과 관련 의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이는 유통 네트워크의 변화 혹은 위계 표현 수단의 변화를 시사한다.

고대사학계에서는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를 『삼국사기』의 비류 집단이나 『삼국지』의 신분고국과 연결짓는 견해가 다수를 점한다. 특정 유적을 사료상의 특정 소국 혹은 역사적 사건과 일대일로 연결하는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삼국지』 한조에 드러나는 2~3세기 군현과 한 사회 간 역동적 관계는 경기 서부지역 물질문화를 해석할 때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백제 중앙의 일방적인 흡수와 지배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를 능동적인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이 주변 정치체와 맺은 다각적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연구에서 심화되어야 할 논점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 정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체 간 네트워크와 백제 중앙과의 상호 교류 양상을 제시하였다. 전자의 경우, 진·변한계 철제 무기류와 홍옥수 구슬의 유통망을 통해 경기 남부 및 충청 곡교천 유역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후자의 경우, 토기 뚜껑의 기형을 통해 백제 중앙(풍납토성)과 경기 서부 지역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백제 국가의 성장 과정은 지역 단위 정치체들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하고 협력하며 만들어낸 역동적인 역사의 산물이다. 따라서 백제를 유일한 주체로 두고 주변 세력들을 객체로 상징하는 시각보다는 각 지역 단위 정치체들의 성장과 소멸 양상을 함께 고려할 때 초기 백제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백제, 경기 서부, 분구묘, 네트워크, 지역정치체

## 1. 머리말

백제 국가의 성장은 백제국이 주변 지역정치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는 과정이었다. 본고에서는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와 관련된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에서 심화되어야 할 논점을 시론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특히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를 백제에 의해 흡수되는 객체가 아닌 마한 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의 성장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강 하류역과 경기 서해안 일대에는 2세기 대부터 서해안과 호남 서부에서 유행하는 분구묘가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분구묘 분포권은 경기 북부·동부의 적석묘, 남부의 주구토광묘 분포권과 구별된다. 분묘 내부에서는 다량의 철제 무기류와 북방계 금제이식, 백색 옹 등 외래계 유물이 확인되어 대외교류 역량을 갖춘 지역정치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삼국사기』의 비류(沸流) 세력이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등장하는 신분고국(臣濱沽國) 등으로 비정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연안항로를 통해 낙랑·대방군 등 군현 세력과 교류하며 성장하였고,

온조의 형제로 묘사될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맺은 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삼국시대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백제 초기사를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학계에서 공유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경기 서부 지역의 범위는 경기 서해안 분구묘의 분포권으로, 현재의 파주, 김포, 인천, 시흥 일대에 해당한다. 한편 분구묘 분포권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만의 특징적인 이형토기가 북쪽으로는 파주 와동리 유적에서 남쪽으로는 안산 신길동 유적까지 출토되고 있다. 이는 원삼국시대 경기 서부 지역에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지역정치체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 2. 경기 서부 지역의 분묘 양상

경기 서부 지역은 가현산과 계양산을 경계로 김포와 인천 지역이 분리되며, 다시 소래산을 기준으로 인천 남부 지역이 나뉜다. 특히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 당시의 고지형을 고려한다면, 김포, 인천, 인천 남부 지역은 산줄기와 바닷물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동여지도』 등 조선시대 고지도를 통해서도 경기 서부 지역의 행정구역이 자연지형을 경계로 김포(金浦), 부평(富平), 인천(仁川), 안산(安山) 등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포 일대의 분구묘가 조사되면서 경기 지역에도 호서·호남 지역의 서해안에 분포하는 마한계 분구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분구묘는 현재의 김포,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만 일대의 향로는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의 입지와 성장 배경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강화도 북쪽은 전근대시기 포구가 발달하지 않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강화도호부」 조에 의하면, 강화도 북쪽 물가는 물

이 너무 넓어 도강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을 배로 건넌 후, 30여 리 육로를 이용하여 갑곶(오늘날의 강화대교)에 이르면 건너는 곳이 매우 좁아서 쉽게 건널 수 있었다.<sup>1</sup> 고려시대에 강화에서 개경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조강에서 강화도 북부 해안은 강의 물살이 험해서 포구가 발달하지 않았다.<sup>2</sup> 한강 이북에서 조강을 건넌 후 육로를 이용하여 서해로 향하는 교통로가 사용되었다면, 김포 운양동 유적과 양촌 유적은 한강 이북의 임진강 유역의 파주 지역을 서해 연안항로와 연결해주는 핵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강화도 이남으로는 영종도의 역할이 중요했다. 현재의 영종도는 원래 두 개의 섬이었는데 서쪽 큰 섬의 자연도(紫燕島)가 주요 기항지로 사용되었다. 자연도에는 원삼국시대 대외교류를 시사하는 백색 옹, 철경동축 등 외래계 유물이 분포한다. 경기만의 항로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 서부 지역 내에서 복수의 정치체들이 교통로의 요지에 입지하며 고분군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서부 지역은 자연지형, 취락과 분묘 유적의 밀집도에 따라서 강화·김포, 인천 북부, 인천 남부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sup> 본장에서는 경기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분묘 유적을 통해 해당 지역 분구묘의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유구의 수량, 밀집도 측면에서 지역정치체의 수장층을 상징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갖는 김포 운양동 유적과 인천 연희동 유적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sup>4</sup>

1 『新增東國輿地勝覽』卷12 京畿 江華都護府 樓亭.

2 문경호(2021), 「고려 강도시기 경기만 일대의 주요 포구와 물자 유통」, 『한국의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인천』, 경인문화사, pp. 12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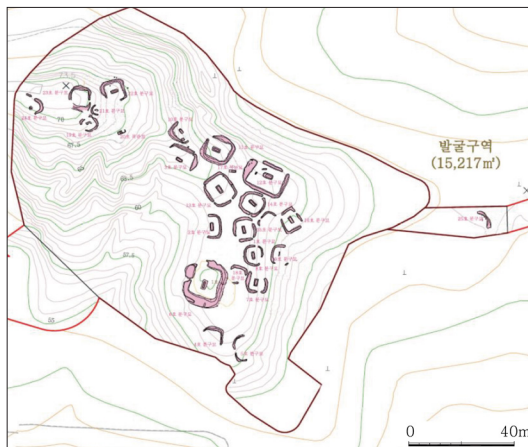
3 박경신은 유적 밀집도를 기준으로 강화, 양촌, 영종, 연희, 남촌 5개 유적군으로 세분한 바 있다. 박경신(2022), 「경기 서부지역 (원)삼국시대 지역정치체의 동향」 『고대 역사속의 부천과 우후모탁국 학술대회』, 부천시·부천문화원·부천향토문화연구소, pp. 15-18.

4 인천 남부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인천 구월동 유적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사된 유구의 수량(9기)이 적고 부장 유물이 소략하여 개별적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대신 경기 서부 지역 분구묘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다루고자 한다.



## 2.1. 유적 소개

강화·김포 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이자 지역 수장층을 상징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김포 운양동 유적이 있다. 한강과 나란히 뻗은 구릉에서 분구묘 32기, 목관묘 3기가 확인되었다. 분구묘는 정상부와 그에 가까운 사면부에 입지하여 위계를 드러낸다. 주구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방형이다. 주구의 규모가 16m 이상의 대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3기이며, 주구 규모가 10m 미만의 소형 분구묘는 22기로 다수를 차지한다.<sup>5</sup> 대형에 속하는 1-11지점 6호, 12호, 30호는 목곽을 갖추거나, 철검, 환두도 등 철기류, 금제이식이 출토되고 있어서, 분구의 규모는 피장자의 위계를 나타내는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sup>6</sup> 분구묘가 밀집된 1-11지점의 경우, 구릉 정상부의 가장 높고 평탄한 곳에 대형 분구묘가 위치하고 그 주위로 소형 분구묘가 배치되어 있다.



출처: 한강문화재연구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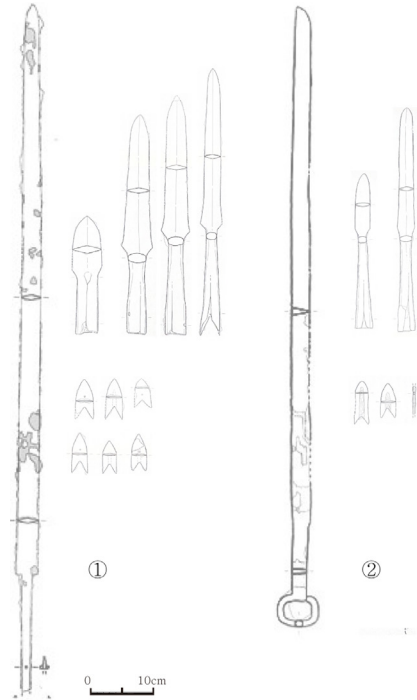
[그림 3] 김포 운양동 유적 1-11  
지점 분구묘 밀집구역

5 대형(주구 규모 16m 이상)과 소형(주구 규모 10m 미만)의 기준은 지혜(2019), 「김포·인천지역 마한 분구묘의 시공간적 특성」,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9-30을 참조하였다.

6 김기옥(2013), 「VI. 고찰」, 『김포 운양동 유적 I』, 한강문화재연구원, p. 667.

매장주체부는 대체로 목관을 사용하였으며, 목곽을 사용한 경우가 1기만 확인된다. 분구 당 매장주체부는 모두 1기씩만 확인되어 단장(單葬)이다. 매장주체부의 장축 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는 사례가 26기, 직교하는 사례가 2기로, 대체로 평행하다. 매장주체부에서 철기류가 5기를 제외한 모든 분묘에서 출토되어서, 운양동 유적에서 철기 부장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그 수량은 철검·환두도·소도가 14점, 철모 66점, 철촉 64점 등 동시기 한강 유역의 다른 유적을 압도하는 양상이다.<sup>8</sup> 분구의 규모와 철기류 부장 양상을 통해 피장자의 위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철장검과 환두대를 소유하고 장신구류, 복수의 무기류를 부장한 1-11지점 3호, 6호, 11호, 12호, 13호, 2-9지점 1호 유구가 높은 위계를 지닌다고 평가된다.<sup>9</sup> 토기류는 목관 내에 부장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고,<sup>10</sup> 대부분 주구에서 파편으로 출토되었다. 토기 기종은 모두 호류, 용



[그림 4] 운양동 분구묘 분기별 출토 철제무기류  
(① 2-9지점 1호, ② 1-11지점 30호)

7 김길식(2014), 「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를 중심으로」,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 138.

8 김길식(2014), p. 139.

9 김기욱(2013), p. 677.

10 묘광 내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있지만 8건에 불과하다. 목관 위 혹은 보강토에서 호류가 1점 발견되는 양상을 보인다.

류로 저장용기에 해당하고 낙랑토기 백색옹을 포함한다.

운양동 유적에서는 위세품 성격의 금제이식, 세형동검 등이 확인된다. 금제이식은 1-11지점 12호에서 1점, 2-9지점 1호에서 2점 출토되었다. 두 유구에서 출토된 금제이식은 피장자의 두부(頭部)에서 다량의 구슬류와 함께 확인되었다. 국내에는 유사 사례가 없고, 중국 길림성(吉林省)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 유적 41호묘, 93호묘, 103호묘 출토품과 비교된다.<sup>11</sup> 한편 세형동검이 1-11지점 27호에서 1점 확인되었다. 동검의 연대는 기원전 3세기 후엽으로 추정되지만, 철모 등 공반유물로 보아 전세품으로 판단되며 유구의 연대는 2세기 중~후엽으로 비정할 수 있다.<sup>12</sup> 구슬류의 경우, 4,000여 점의 구슬류가 출토되는 유구(1-11지점 2호)가 존재하여 그 위상을 보여준다. 구슬의 종류도 홍옥수, 수정절자옥, 흑옥제 평옥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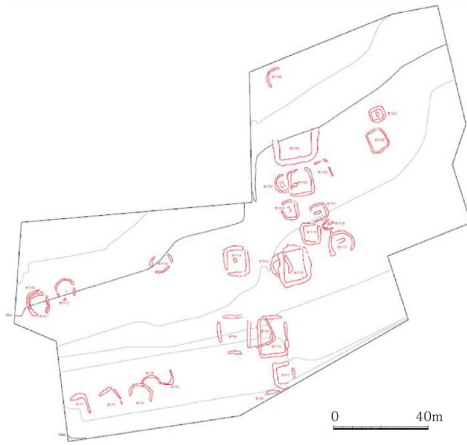
매장주체부 출토 철기류를 통해 분기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철검이 부장되고 관부돌출형 혹은 이단병식철모가 출토되는 시기이다(1-11지점 12호, 2-9지점 1호).<sup>13</sup> ② 다음으로 병부와 환두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환두도가 출토된다. 철모는 직기형이지만 관부돌출형이 없고 연미형 철모가 등장한다. 이 시기에는 무경식능형촉은 사라지고 유경식능형촉, 유엽형촉 등 다양한 철촉 형식이 나타난다(1-11지점 6호, 30호). 운양동 1기에는 철기류의 다량 부장 현상이 뚜렷하고 금제이식, 유리구슬 등 위세품도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후 2기에 들어서 철기류의 부장량이 비교적 줄어든다. 전체 유적의 연대는 2세기 중엽~3세기 말엽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천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인천 연희동 유적에서는 58기의 분구묘가 확인되었다. 1지점에서 7기, 3-1지점에서 29기, 3-2지점에서

11 이한상(2013), 「김포 운양동유적 출토 금제이식에 대한 검토」, 『김포 운양동 유적Ⅱ』, 한강문화재연구원, pp. 262-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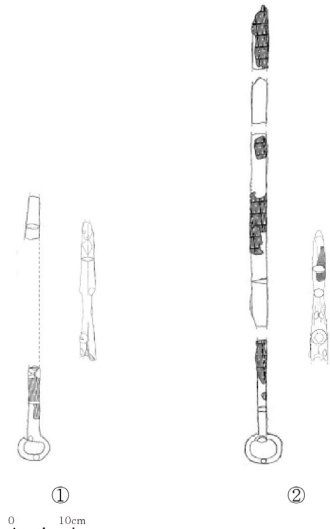
12 김기욱(2013), pp. 671-672.

13 김길식(2014), pp. 158-159.



출처: 서경문화재연구원(2013)

[그림 5] 연희동 유적 3-1지점



[그림 6] 연희동 유적 분기별 출토 철제유기류 (① 3-2지점 2호, ② 3-1지점 10호)

22기가 확인되었는데, 매장주체부가 잔존한 사례는 12기에 불과하다. 고분군은 저평한 구릉 사면에 위치하며 조사된 범위 외에도 분구묘가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릉 정상부의 분구묘가 구릉 하단부의 분구묘보다 상대적으로 주구 규모가 크다. 사면 하단부로 갈수록 주구의 규모는 축소되고 유구 간 중복양상이 심화되는데, 이는 위계에 따른 입지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4</sup> 주구의 평면은 방형계 24기, 원형계 34기로 분류되어 방형계와 원형계가 혼재되어 있다. 주구의 규모가 16m 이상의 대형 분구묘는 10기이며, 10m 미만의 소형 분구묘는 12기이다. 운양동 유적과 마찬가지로 대형 분구묘는 모두 방형계 주구를 갖추었다.

매장주체부는 목관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단장이다. 매장주체부의 장축 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하는 사례가 9기, 평행하는 사례가 3기 확인되는데,

14 지혜(2019), p. 28.

대체로 사면부에 조영되어 직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매장주체부에서는 환두도, 철모, 철촉 등 무기류 중심의 부장이 확인된다. 운양동 유적과 달리, 철기류는 기종당 1점을 넘지 않는다. ‘환두도+철모’를 기본 조합으로, 철촉, 철부, 철검, 철도자 등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한편 일부 매장주체부에 단경호가 함께 부장되는 경우도 존재한다.<sup>16</sup> 토기류는 주로 주구에서 파편으로 확인된다. 출토 토기류 347점 중 발형토기(77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옹(16점), 호(18점) 등 저장용기 또한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3-2지점 17호에서 출토되는 뚜껑류가 특징적인데, 뚜껑 턱이 돌출한 형태로 경기 서부 지역의 특유의 양식에 해당한다. 주구에서는 이중구연호, 낙랑계 토기 제작 기술(회전물손질흔, 저부깍기흔)이 반영된 토기도 확인된 바 있다.

연회동 유적에서는 사면 중하단부에 분구묘 외에도 구상유구가 밀집해 있다. 구상유구의 양 끝을 확장하여 토기 등 유물을 매납하는 사례가 관찰되며, 주구와 마찬가지로 구상유구 출토 토기류도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된다는 점에서 의례 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매장주체부 출토 철기류를 통해 분기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병부와 환두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고 관부 형태가 무관에 해당하는 환두도가 부장되는 시기이다(3-2지점 2호). ② 다음은 환두도의 경부가 뚜렷하며 결합형으로 제작되는 시기이다(3-1지점 10호). 이때 철모 신부의 단면 형태가 편능형에서 능형으로 변화하고, 철촉의 경우 능형, 도자형 등 다양한 평면 형태가 확인된다. 전체 유적의 연대는 3세기 전엽~4세기 중엽의 시간 폭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15 지혜(2019), p. 35.

16 1-5지점 4호, 3-1지점 10호, 3-1지점 20호 등.

## 2.2. 경기 서부 지역 분구묘의 특징

이상에서 검토한 대표적인 두 유적을 중심으로 경기 서부 지역 분구묘의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위계가 높은 대형분이 일정 간격을 두고 구릉 정상부에 먼저 조영되었으며 그 주변으로 분구묘들이 공간을 메워가며 묘역이 확장된다. 주구의 평면 형태는 방형계가 우세하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서부 지역의 고분군에서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난다.<sup>17</sup> 매장주체부는 유구당 1기로 단장이 보편적이다. 매장주체부인 목관에는 철기류 위주로 부장했고, 토기류 부장은 희소하게 확인된다.

철기류의 경우 운양동 1기에서는 철모를 복수 부장하는 등 하나의 유구에서 다량의 철기류를 부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운양동 2기와 연희동 유적 전 시기에서는 환두도, 철모, 철촉 1점씩 부장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매장주체부가 잘 남아있는 운양동 유적으로 한정해서 볼 때, 1기에는 유구당 철기 부장량이 약 9.5점인 반면 2기에는 약 4.08점으로 줄어든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3세기 이후 철기 부장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경기 서부 지역의 분묘 유적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도 경기 서부 지역에서 분구묘가 조영되는 2세기 중엽부터 4세기 전반까지 유구당 철기 부장량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sup>18</sup>

유구당 토기 출토 수량은 운양동이 0.97점(34점/35기), 연희동이 5.78점(347점/60기)으로 후자가 높은 비율을 보인다. 목관에 토기를 부장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연희동 유적에서는 해당 사례가 일부(1-5지점 4호 등) 확인된다. 토기 부장 양상에서 확인되는 운양동, 연희동 유적의 차이는 지역 차이일 수도 있지만 유적 연대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3세기부터 김

17 김기옥(2018), 「인천 검단의 원삼국~백제」, 『중부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8-6, 중부고고학회, p. 55.

18 송만영(2021a), 「한강 하류 분구묘 부장 토기의 변화와 의미」, 『韓國上古史學報』 111, 한국상고사학회, p. 62.

포·인천 지역의 유적 전반에서 토기 부장량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sup>19</sup> 철기류의 감소와 토기류의 증가는 유통 네트워크의 변화, 위계 표현 수단의 변화를 시사한다.

토기류는 매장주체부보다 주로 분구묘의 주구에서 파편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문산 당동리, 김포 양촌, 김포 양곡 등 경기 서부 지역의 다른 유적에서도 관찰된다.<sup>20</sup> 주구나 구상유구에서 토기 등을 파쇄하는 의례는 다른 마한 권역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 의례로 보인다. 완주 갈동, 광주 오룡동 유적 등에서는 구상유구 내부에서 수십~수백 여 점의 토기편이 파쇄된 상태로 석축, 인물형토우 등과 출토되는 사례가 있다. 구상유구와 분구묘 주구에서 이뤄지는 지역 사회의 제사, 축제의 산물로 해석한 견해가 참조된다.<sup>21</sup>

김포 운양동, 인천 연희동 유적을 비롯한 경기 서부 지역 분구묘 유적의 조영 연대를 고려하면, 2세기 대 김포 운양동 유적에 유력한 세력이 존재했으며 3세기 대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서부 지역에 분구묘가 조영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다만 연희동 유적의 조사 구역이 한정되었던 만큼 운양동 유적에 비견될 정도의 이른 시기 분묘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 3세기 말엽에 이르면 인천 구월동 유적, 시흥 은행동 유적 등 인천 남부 지역까지 분구묘가 확산되는 한편, 경기 서부 지역 전역에서 분구묘의 수가 감소한다. 4세기 이후에는 한성양식토기를 부장하거나, 다인장이 이뤄진 분구묘가 등장하기도 한다. 분묘 부장품으로 직구단경호(양촌 4라-1호), 흑색마연직구단경호(중산동 1호) 등 한성양식토기도 소수이지만 관찰된다. 다인장의 경우, 양촌 3나-5호 분구묘에서 매장주체부가 2기, 검단사-1호 분구묘에서 매장주체부가 7기가 확인되었다. 두 유구 모두 부장된

19 송만영(2022), 「한강 하류역 분구묘 분포권의 무덤 위계」, 『고고학』 21-1, 중부고고학회, p. 155.

20 서경문화재연구원(2013), 『인천 연희동 유적』, p. 693.

21 김승옥(2024), 『마한 분구묘의 이해』, 학연문화사, pp. 100-101.

단경호에서 외면 무문화, 저부 말각평저의 특징이 확인되고, 검단 사-1호 분구묘의 경우 완, 직구광견호 등 한성양식토기가 출토되었다. 출토 토기류를 고려하면 비교적 늦은 시기인 4세기 전·중엽으로 비정된다.<sup>22</sup> 4세기 중엽부터는 철제 무기가 부장되는 묘제가 분구묘가 아니라 목관묘(구월동 9호, 매화동 수습 토광묘)가 되는 흐름을 보인다.<sup>23</sup>

### 3.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 관련 중요 쟁점

#### 3.1. 신분고국과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백제국을 포함하여 마한 50여 국에 대한 서술이 등장한다.<sup>24</sup>

[馬韓의 諸國으로는] 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漬沽國·伯濟國 … 등 모두 5십여 國이 있다. 큰 나라는 萬餘家이고, 작은 나라는 數千家로서 總 10餘萬 戶이다. 辰王은 月支國을 통치한다.

마한과 관련된 기록은 238~297년경 대방군에서 마한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수집한 일괄 자료로 추정된다. 대방군은 해로를 통하여 마한과 교섭하였기 때문에 내륙보다는 연안항로의 거점과 그와 연계된 정치체가 수록 대상이 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sup>25</sup>

22 전미란(2013), 「중서부 해안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고려대학교 문화재 학협동과정 고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p. 35.

23 송만영(2022) p. 146.

24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

25 윤용구(2019), 「馬韓諸國의 位置再論」, 『지역과 역사』 45, 부경역사연구소, pp. 19-22.

백제국 앞에 서술된 원양국, 모수국, 상외국, 소식색국, 대석색국, 우휴모탁국, 신분고국은 대방군과 인접하며 연안항로와 관련된 경기 북부~서부 지역 일대의 정치체로 비정되어 왔다. 특히 소식색국은 개로왕대 북위에 보낸 표문 중 ‘서쪽 경계의 소식산(小石山)’이라는 표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sup>26</sup> 백제 서쪽 해역이자 고구려와 인접한 인천 교동도~강화도 일대로 비정한 견해가 참조된다.<sup>27</sup> 신분고국은 대방군 기리영(岐離營)을 공격한 주체로 주목되어 왔다. ‘기리영 전투’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지』 한조에 대방군의 설치, 한(韓)에 대한 서술과 함께 등장한다.

桓帝·靈帝 末期에는 韓濊가 강성하여 郡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군현의) 많은 백성들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 建安 연간(196~220)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帶方郡으로 삼고, 公孫模, 張敞 등을 보내 유민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 韓濊를 정벌하자,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이 뒤에 倭와 韓은 마침내 대방에 속하였다.

景初 연간(237~239)에 明帝가 몰래 帶方太守 劉昕과 樂浪太守 鮮于嗣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2군을 평정하였다. 여러 한국의 臣智에게는 邑君의 印綬를 더하고, 그 다음에게는 邑長을 주었다. 그 풍속은 衣幘을 좋아하여, 下戶가 군에 가서 조알할 때는 모두 의책을 빌려입으며, 스스로 인수와 의책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 된다.

部從事 吳林은 낙랑이 본래 한국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辰韓 八國을 분할하여 낙랑에 주려고 하였다. 관리가 통역하여 전달함에 다른 부분이 있어, 臣智激韓[臣憤沽韓]忿하여 대방군의 岐離營을 공격하였다. 이때 (대방) 태수 弓遵과 낙랑태수 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였는데, 궁준은

26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蓋鹵王 18년, “去庚辰年後, 臣西界小石山北國海中, 見屍十餘, 并得衣·器·鞍·勒, 視之非高句麗之物.”

27 임동민(2022), 「백제 한성기 해양 네트워크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 130-131.

전사하였다. 2군은 마침내 한을 멸하였다.

부중사 오림이 대방에 속했던 진한 8국을 낙랑에 통속시켰는데, 이에 마한 세력이 반발하여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했다는 내용이다. 『삼국사기』 고이왕 13년조에 기리영 전투와 연계되는 기사가 실려있다.<sup>28</sup>

가을 8월, 魏의 幽州刺史 毋丘儉이 낙랑태수 유무, 朔方[帶方]태수 王遵 [弓遵]과 함께 고구려를 쳤다. 왕이 빈틈을 타서 左將 眞忠을 보내 낙랑의 변경 주민을 습격하여 빼앗으니 유무가 듣고 노하였다. 왕이 침략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 주민들을 돌려주었다.

기리영 전투의 시점은 244~246년에 걸친 관구검의 동방 원정이 종결되는 시기, 궁준이 전사한 시기, 삼국사기 고이왕 13년(246)의 시기를 고려하면, 246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sup>29</sup> 기리영 전투의 주체로는 백제국, 목지국, 신분고국이 제기된 바 있다.<sup>30</sup> 『삼국지』의 가장 오래된 판본에서 ‘신지격한분’(臣智激韓忿)이 ‘신분고한분’(臣憤沽韓忿) 등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이 지적된 이후 신분고국(臣憤沽國)이 기리영 공격의 주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우세하다.<sup>31</sup> 이때 전쟁의 배경은 교역체계 개편 이후 군현과 한반도 중남부 내륙지방 사이에서 누렸던 신분고국의 교역상 이익이 상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교통로의 측면에서 진한 8국이 군현과 육로

28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古余王 13년

29 권오영(1995), 「2. 백제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pp. 30-31; 윤선태(2001), 「馬韓의 辰王과 신분고국」, 『百濟研究』 3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p. 15-16.

30 기리영 전투와 관련된 연구사는 「이정빈(2017), 「기리영을 통해 본 마한 諸國과 曹魏」, 『백제학보』 22, 백제학회; 김영심(2024), 「대외관계 측면에서 본 3세기 마한사회 연구 현황과 쟁점」, 『한국고대사연구』 116, 한국고대사학회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31 윤용구(1998), 「삼국지 한전 대외관계 기사에 대한 일검토」, 『백제연구총서』 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를 통해 교섭하게 되면서 대방군-변환을 잇는 연안항로의 요충지에 있던 신분고국이 반발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제시되었다.<sup>32</sup>

경기 서부 지역의 분구묘가 조사되면서 신분고국과 기리영 전투를 고고자료와 밀접하게 연계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신분고국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이병도·천관우 이래로 개풍, 가평, 연천, 파주, 강화, 김포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최근에는 발굴 성과를 활용한 위치 비정이 시도되었는데, 김경화는 신분고국과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을 인천 서구,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은 김포로 비정하였다. 또한 분구묘가 가장 많이 발견된 인천 연희동 유적을 국읍의 분묘군이라고 추정하였다.<sup>33</sup> 하지만 음상사(音相似)를 활용한 소국 비정은 방법론 측면에서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고, 국과 국읍(읍락) 단위의 정치체를 특정 유적에 바로 대입해서 비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고고학계에서도 기리영 전투를 주도한 신분고국의 실체에 주목하였다. 3세기 전반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 철제무기류가 대량으로 집중된 배경으로 신분고국이 주체가 된 기리영 전투를 제시한 연구가 대표적이다.<sup>34</sup> 원삼국시대 후기부터 한강 하류 유역에 외래의 철제무기가 집중하는 현상은 특징적인데, 이를 북쪽에 있던 모종의 정치집단과의 군사적인 대치 또는 전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인용하여 3세기에 존재했던 연안항로 네트워크에서 신분고국이 활약했다고 해석한 연구가 있다. 경기만의 넓은 갯벌, 큰 조차, 빠른 조류 등 해양 환경은 항해를 방해하는 요소였기에, 경기만 일대에서 교류를 위한 기술, 경험, 정보를 독점한 지역 정치체가 등장했다. 경기만 일대에서 성장한 신분고국은 기리영 전투를 벌일 정도로 유력한 정치체로 부상하였고 김포 운양동 유적의 북방계,

32 박대재(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pp. 117-138; 임동민(2022), p. 25.

33 김경화(2022), 「인천 - 김포지역 분구묘와 마한」, 『한국학연구』 6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280-281.

34 김길식(2014), pp. 167-169.

군현계 유물은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sup>35</sup>

그러나 철제무기류의 부장을 기리영 전투와 연결시킨 해석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철제 무기류는 수장층의 주거지 등 생활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부장 무기류는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점, 개인당 부장 평균 철제 무기의 수는 오히려 3세기부터 줄어들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sup>36</sup> 이러한 지적은 타당한데, 사료의 특정 사건을 곧 물질문화의 변동과 연동해서 볼 때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경기 서부 지역의 물질문화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삼국지』 한조에 기록된 군현과 한 사회 간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삼국지』 한조에는 기리영 전투를 포함하여 2세기 후반~3세기 중엽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환령지말에 한예가 강성하여 군현의 백성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건안 연간(196~220) 대방군 설치 이후 옛 백성이 점차 돌아왔다는 내용은 당시 군현과 한 사회 사이에 빈번한 인적 이동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군현과 인근의 지역정치체 간 갈등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초 연간(237~239) 대방군은 여러 한국의 신지에게 인수를 더해주는 등 유화 정책을 펼쳤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정황은 군현과 비교적 가까운 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데,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의 동향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세기 후반부터 김포 운양동 유적에 다량의 철제 무기류와 외래계 유물이 집중되고, 3세기 대에 경기 서부 전역에 마한 분구묘가 성행하는 현상은 특징적이다. 이는 2세기 후반~3세기 전반 연안항로를 통해 군현과 마한 소국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가 급속히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가 신분고국이었는지, 3세기 중엽 기리

35 임동민(2021), 「고대 황해 교섭·교류 항로와 경기만」, 『백제학보』 38, 백제학회, pp. 20-22; pp. 52-53; 김경화(2022), pp. 283-284.

36 송만영(2021c), 「한강 하류 분구묘 분포권 지역정치체의 동향과 성격」, 『崇實史學』 47, 송실사학회, p. 61-62.

영 전투의 주체였는지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삼국지』 한조에 서술된 내용은 경기 서부 지역의 역사적 전개를 해석할 때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 3세기 중엽 기리영 전투가 한 사회의 교류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기리영 전투 결과 “이군(二郡)은 마침내 한(韓)을 멸(滅)하였다.”는 기사는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군현 인근의 한 사회에서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목지국을 포함한 광역적 관점에서, 3세기 대 경기-충청 일대의 물질문화가 보여주는 네트워크 변화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 3.2. 백제와의 관련성

### 3.2.1. 『삼국사기』 시조 설화

인천 지역은 『삼국사기』 온조왕 원년조에 등장하는 백제 시조 설화와 관련하여 비류 세력이 정착한 미추홀(彌鄒忽) 지역으로 일찍이 주목받았다.<sup>37</sup> 미추홀은 「광개토왕비」에서 영락 6년(396) 고구려가 빼앗은 백제의 58성 중 미추성(彌鄒城)과 연결된다. 또한 『삼국사기』 지리지에 “소성현(邵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매소홀현(買召忽縣)인데 (….) 지금의 인주(仁州)이다. (….) 매소는 미추(彌鄒)라고도 한다”는 기사가 있어서,<sup>38</sup> 미추홀은 고려의 인주, 즉 인천 일대로 비정된다. 비류 집단이 정착한 구체적인 위치로는 조선 시대 이래로 문학산성이 주목받았다. 다만 문학산성은 신라 산성이라는 점에서 비류 집단의 정착지를 문학산~영종도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39</sup> 이후 고대사학계에서 비류 집단이 정착한 지점은 일반적으로 인천 경기만 일대로 이해된다. 미추홀의 흙이 짜

37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즉위조

38 『三國史記』卷35 雜志4 地理2 新羅 栗津郡

39 정재윤(2002), 「彌鄒忽의 位置에 대한 再檢討」, 『博物館誌』 4, 인하대학교 박물관.

고 습하다는 점은 경기만 연안 인천의 해양환경과 일치하며 한강 하구의 해양성이 사료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한다.<sup>40</sup>

2010년대 경기 서부지역의 고고문화가 드러나면서 백제 시조 설화에서 등장하는 미추홀 지역은 재조명을 받게 된다. 특히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되는 외래 유물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백제의 시조 설화에서 비류와 온조 집단이 북방계 유이민이었다는 요소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특히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된 나선형 금제이식은 중국 길림성 노하심 유적, 집안(集安) 운봉(云峰)유적(적석총) 출토품과 비교되며 부여계 유물로 주목받았다. 금제이식을 비롯한 수정절자옥 등 외래계 유물을 경기 서부 지역에 부여·고구려계 유이민 집단이 남하한 결과로 해석한 견해가 있다.<sup>41</sup> 압록강 중상류역의 적석총에서 출토된 나선형 금제이식을 근거로 두 지역 집단의 계통적 유대 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을 연결하여 부여·고구려계의 비류계 집단이 미추홀 지역에 정착했다가, 다시 한강 중류역의 온조계 집단으로 흡수되었다고 해석했다. 운양동 유적의 철제무기류 계통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철장검이 부여·고구려 계통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유이민의 존재에 주목하였다.<sup>42</sup> 즉, 철검은 직각형태의 관부에 청동제 초미금구(黠尾金具)와 같은 한식 철검의 요소가 확인되지만, 부여와 낙랑 두 지역에서도 부여계와 한식계 철검이 혼재한다는 점, 금제이식과 같은 부여·고구려계 유물과 공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여·고구려계로 판단하였다.

다만 운양동 유적 축조 세력에 유이민이 존재했다는 견해는 송만영에

40 임동민(2023), 「미추홀에서 백제로의 변화」, 『인천 연안의 고대문화와 백제』 인천역사문화총서 98, 인천광역시, pp. 134-135.

41 차윤환(2013), 「한강 중·하류 유역에 위치한 정치체의 존재양상: 묘제를 중심으로」, 『古文化』 8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 46-48.

42 김길식(2014), pp. 146, 160.

의해 지적된 바 있다.<sup>43</sup> 낙랑에서도 부여계와 한식계 철검이 혼재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부여·고구려 지역으로부터 직접 철검이 유입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낙랑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되는 외래계 유물을 부여·고구려계 세력과 연결하는 해석은 결국 『삼국사기』의 백제 시조 설화를 의식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류와 온조의 형제 관계와 관련하여, 비류 집단(미추홀국)과 온조 집단(십제국)이 연맹 관계를 형성한 후 그 관계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시조형제설화’가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sup>44</sup> 이와 관련하여 물질자료를 통해 연맹관계를 실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운양동 유적, 양촌 유적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 단경평저호의 기형이 석촌동 출토품과 유사하며, 토기 부장이 저조한 가운데 복수기종의 토기 부장이 확인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3세기 중엽부터 한강 하류역과 중류역의 두 집단이 토기 부장 전통을 공유하는 현상은 두 정치체가 연맹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45</sup>

다만 한강 유역의 정치체가 토기 기형 및 부장 양상을 공유하는 현상을 정치적인 연맹 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물질문화의 공유가 곧 군사적 동맹과 같은 정치적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석촌동 하층토광묘의 연대를 3세기 중엽으로 비정하는 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조 설화에서의 비류와 온조의 형제 관계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설화를 통해 비류와 온조로 대표되는 두 집단이 모종의 관련성을 지녔음을 읽어낼 수는 있지만, 공동 방어를 상정할 정도의 정치적 협력 관계였는지, 교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계였

43 송만영(2021c), p. 63.

44 노중국(1988),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pp. 62-63; p. 69.

45 송만영(2021a), pp. 31-32.

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시조형제설화가 후대에 만들어져서 부회되었다면, 백제 국가의 성립 시점 외에 설화가 만들어진 시점의 미추홀 지역과의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2.2. 백제의 성장과 영역화

『삼국사기』 고이왕 13년조에 의하면 기리영 전투 과정에서 백제는 전투에 일부 참여했다가도 군현에 민구를 돌려주는 태도를 보이면서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백제는 한 사회의 내부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강 중류역에서 성장하였고 『진서』 단계에 ‘마한주’(馬韓主)로 부상하면서,<sup>46</sup> 대외 교섭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백제가 한강 하구와 서해안 일대를 장악하는 과정은 대외교섭권을 확보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백제가 마한주로 부상하는 3세기 말부터 백제가 경기만 일대, 즉 경기 서부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sup>47</sup> 『삼국사기』 고이왕대 ‘서해대도’(西海大島)에서 전령을 행했다는 기사에 주목하며 3세기 단계에 이미 약화된 인천 지역의 정치세력을 포섭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48</sup>

그러나 백제 중앙에서는 3세기 중엽~후엽에 해당하는 물질문화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오히려 철기류, 외래계 유물 등 위상을 보여주는 유물 측면에서 여전히 경기 서부 지역이 훨씬 탁월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질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3세기 중후엽 경기 서부 지역과 백제와의 관계에서 경기 서부 지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sup>49</sup> 특히 3세

46 『晉書』 卷97, 列傳67, 四夷 東夷 馬韓: ‘마한주’는 백제로 보는 견해, 목지국 등 다른 마한 소국의 주장으로 보는 견해, 마한 소국들의 독자적 교류로 보는 견해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사 정리는 김영심(2024), pp. 283-289가 자세하다.

47 임동민(2021), p. 22.

48 김경화(2022), pp. 286-287.

기 중엽~후엽 의례용 기종인 이형토기가 파주에서 안산까지 경기 서해안을 따라 확인되는데 이를 내부 결속을 위한 토기 의례가 경기 서부 지역에서 성행했다고 해석하면서, 백제가 한강 하류역을 영역화한 시점은 4세기 초를 소급할 수 없다고 본다.<sup>50</sup> 이후 4세기 전반 어느 시점부터 분구묘 조성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백제가 현지의 수장층을 해체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51</sup> 한편, 김포 양촌 유적, 인천 연회동 유적, 구월동 유적 등에서 4세기 중엽 이후에도 분구묘가 지속하는 모습을 두고, 백제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한 연구도 있다.<sup>52</sup>

경기 서부지역을 다시 소지역으로 구분하고 백제의 물질문화가 확산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연구도 제기되었다. 4세기 전반 인천 남촌동 취락을 중심으로 하는 인천 남부 지역에선 백제 중앙의 토기 문화를 공유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편, 김포 지역은 4세기 대까지 취락에서 백제의 취사용기를 공유하지 않고 소수의 백제토기만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sup>53</sup>

백제의 영향력·지배력과 관련된 견해 차이는 편년관의 차이도 있지만 물질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역 전통의 묘제가 존속하는 것 자체만으로 백제 지배력의 정도가 ‘간접적’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백제가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방을 운영하더라도 현 지에는 이전부터 지역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수장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한 정치체의 독자적 의례 행위와 연결되어 해석되는 이형토기 또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의례 행위가 반드시

49 송만영(2021c), p. 64.

50 송만영(2016), 「한강 하류 마한 취락의 편년과 전개 과정」, 『崇實史學』 36, 송실사학회, pp. 33-34.

51 송만영(2016), p. 37.

52 지혜(2019), p. 80.

53 박경신(2022), p. 53; 한지선(2022), 「원삼국~백제 한성기 시흥 지역 집단의 존재 양상과 변화」, 『규장각』 6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 19-21.

시 정치적인 독립성을 전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지역에서 분구묘 조성이 단절되었다면, 다른 지역과 달리 현지의 수장층이 해체된 배경이 무엇이고 백제가 해당 지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소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현지 수장층의 양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4.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가 참여한 네트워크의 역동성

그간의 연구에서는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를 논의할 때 군현과의 교류 과정에서 성장했음에 주목하고, 백제의 영역화 과정과 연계지어 서술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를 군현 교류에서의 경유지 혹은 백제의 흡수 대상이 아닌 네트워크의 주체로 파악하여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본장에서는 추후 생각해볼 논점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기 남부-충청지역과의 연결 관계로, 목지국으로 비정되는 충남 곡교천 유역과의 연결성이다. 또 하나는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와 백제 중앙 간 상호 교류이다.

##### 4.1. 경기 남부-충청지역과의 네트워크

경기 남부-충청지역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철제 무기류, 구슬류, 토기류 등 다양하다. 우선 철제무기류는 선행연구에서도 계통 측면에서 주목해 왔다. 한강 유역에서 무기류 자체 생산 흔적과 실물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운양동 유적의 철기류는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여·고구려(철검), 북한강 유역(철촉), 진·변한 지역(철검, 철모, 환두도) 등 다양한 계통의 철기류가 한강 하류역에 유입되었음이 지적된 바 있다.<sup>54</sup> 부여·고구려계 무기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직접 유입되었다기보다는

군현을 통한 교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다만 진변한계 철기류가 경기 남부-충청 지역을 통해 들어왔음을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진·변한계 철제무기류는 목지국과 관련된 곡교천 유역이 유통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sup>55</sup> 2세기 중엽 이후 곡교천 유역의 아산 용두리 진터, 명암리 밖지므레 유적은 철기류, 구슬 등 위세품류 측면에서 지역정치체의 성장을 보여주는데, 이들 유적을 중심으로 김포 운양동, 오산 궐동, 서산 예천동 등으로 진·변한 철제무기가 공급되었다.

진·변한 지역에서 충청지역을 거쳐 경기 서부지역으로 유입된 철제무기류는 사각관의 관부를 지닌 철장검, 철장검에 접합하는 궐수형 장식이 대표적이다.<sup>56</sup> 철장검은 운양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한편, 궐수형 장식은 중요기항지였던 인천 운서동 유적에서 부장된 사례가 있다.<sup>57</sup> 3세기 대 분구묘에 환두도, 철모, 철촉과 같은 기본적인 무기류 세트와 함께 궐수형 장식이 출토되었다.

진·변한계 무기류의 분포 양상을 두고, 신분고국과 대방군의 전투에서 목지국이 무기 공급을 통해 신분고국을 지원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sup>58</sup> 그러나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부장품으로 발견되는 철제 무기류를 전쟁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그리고 목지국이 기리영 전투에서 신분고국에 무기류를 ‘지원’해줄 만큼 기리영 전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도 불명확하다. 현재로서는 전쟁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경기 서부 지역과 곡교

54 김길식(2014), p. 157.

55 이용범(2018), 「2~3세기 마한과 진변한의 철제무기 교류의 배경」, 『고고학』 17-1, 중부고고학회, pp. 61~64.

56 박장호(2020), 「중서부지역 진변한계 철기의 변화와 철생산」, 『고문화』 9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 22-23.

57 중앙문화재연구원(2010), 『인천 운서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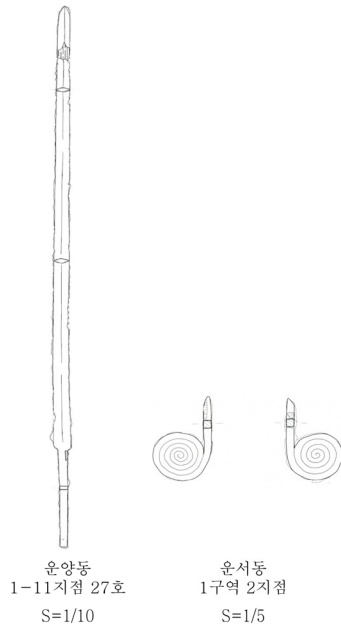
58 김길식(2014), p. 169; 이용범(2018), p. 68.

천 유역 지역정치체 간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의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듯하다.<sup>59</sup>

지역정치체 간 지속적 교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로 홍옥수 구슬이 주목된다.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 구슬류가 1,000점이 넘게 다량 출토되는 사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세기 대 분묘에서 다량 확인되는 한편 3세기 대에도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남부-충청 곡교천 유역의 경우, 홍옥수는 2세기 대 분묘인 오산 궐동 유적 21호에서 11점 출토된 바 있고, 3세기 대에는 아산 명암리 박지므레 유적에서 2-2지점 1호 주구토광묘에서 1,189점,

2-2지점 27호 주구토광묘에서 788점 등 곡교천 유역에서 압도적인 수량이 확인된다. 충청 곡교천 유역 중 천안·아산 일대에 다양한 구슬류가 집중하며 청색계 유리구슬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3세기 후반 백제국만이 대외교섭을 주도하는 유일한 세력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sup>60</sup> 홍옥수를 포함한 구슬 유통망에는 경기 서부, 남부, 충청 곡교천 유역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서부 지역과 경기 남부-충청 지역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는 시흥 오이도 유적이 주목된다. 오이도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이래로 수차례에 걸



[그림 기 진·변한계 무기류(축척 부동)]

59 드물지만 연희동 유적 1-5지점 4호 분구묘에서 철정이 1점 부장되었다.

60 권오영(2017), 「백제고분 출토 유리구슬의 화학조성을 통해 본 수입과 유통」, 『고고학』 16-3, 중부고고학회, p. 56.

[표 1] 운양동 유적에서 구슬류가 1,000점 이상 출토된 사례

분기	유구	유리구슬	수정	홍옥수
1	1-11지점 2호	4562	1	30
1	1-11지점 12호	1790	26	32
2	1-11지점 13호	2146	4	6

쳐 단기적인 점유 양상이 나타난다.<sup>61</sup> 이 중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유물군에서 낙랑계 유물인 철경동축과 함께 내면에 횡방향 승문내박자흔이 확인되는 토기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낙랑토기 제작 기법이 충실하게 재현된 사례인데, 이러한 낙랑계토기는 화성 기안리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오산 쾨동, 평택 가곡리, 아산 용두리, 진천 송두리 유적 등 중서부 지역에 분포한다는 제시된 바 있다.<sup>62</sup> 오이도 유적은 주구토광묘 분포권과 분구묘 분포권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해석된다.<sup>63</sup>

이상과 같이 물질문화상으로 경기 서부 지역은 경기 남부-충청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했음이 확인된다. 교류의 흐름은 군현을 거쳐 경기 서부에서 경기 남부-충청 방향으로 확산되기도 했고, 그 역방향으로 물류가 유입되기도 했다. 전자의 경우 2세기, 후자의 경우 3세기 대에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추후 연구에서 2~3세기 두 지역 간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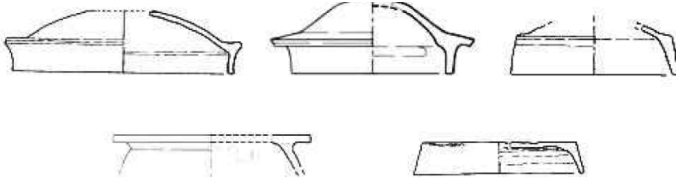
#### 4.2. 백제 중앙과의 상호 교류

한강 중류역의 백제는 3세기 후반부터 대외교류를 주도하면서 연안 항

61 서울대학교박물관(2013), 『시흥 오이도유적』.

62 박중국(2024), 「원삼국시대 화성 기안리 제철공방의 조성 배경」, 『한국고고학보』 2024-2, 한국고고학회, pp. 200-202.

63 박중국(2024), p. 210.



출처: 송만영(2016), 그림 1(필자 수정)

[그림 8] 경기 서부 지역의 무늬식뚜껑

로와 관련된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와 접촉했을 것이다. 이 시기는 백제 중앙의 문화와 왕도가 형성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강 중류역과 한강 하류역에 위치한 두 정치체 간의 상호 교류를 보여주는 물질자료로 뚜껑이 주목된다.

경기 서부 지역에서 출토되는 무늬식뚜껑은 드림부 턱이 돌출한 형태로 지역적 특징으로 이해된다. 신부 형태에 따라 샷갓 형태와 편평한 형태로 분류된다. 샷갓 형태 중에는 연희동 유적 분구묘 출토품과 같이 신부에 장식 효과를 준 것도 있다. 3세기 중엽~후엽이 중심 시기인데 대체로 두 기종이 병존하면서 뚜껑 턱이 점점 소멸했다고 이해된다.<sup>64</sup> 경기 서부 지역 내의 소지역마다 선호하는 뚜껑 기형이 조금씩 달랐다. 강화도, 영종도 일대는 샷갓형을 선호하는 한편, 인천 남부에서는 편평한 형태가 다수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연희동 유적으로 대표되는 인천 북부는 샷갓형과 편평한 형태 모두 확인된다.<sup>65</sup>

한편 백제 중앙에서는 3세기 말~4세기 초부터 무늬식뚜껑이 한성백제 토기성립기의 표지 유물로서 완, 합, 직구호와 함께 등장한다.<sup>66</sup> 백제 중앙의 무늬식뚜껑은 경기 서부 지역의 편평한 뚜껑과 기형이 크게 다르지 않

64 송만영(2016) pp. 24-25.

65 박경신(2022), p. 46

66 한지선(2013), 「漢城百濟期 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 : 서울·경기권 편년수립을 위하여」, 『중앙고고연구』 12, 중앙문화재단연구원, p. 13.

다. 그리고 백제 중앙에서 뚜껍이 출현하는 시기에, 경기 서부 지역에서 편평한 뚜껍이 인천 운남동 패총, 김포 양곡 2지구 등에서 출토되어 두 지역의 연결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 중앙이 경기 서부 지역의 편평한 뚜껍의 영향을 받아서 무늬식뚜껍 기종이 형성되었다고 본 견해가 참조된다.<sup>67</sup> 지역정치체 간 상호 교류 과정에서 경기 서부 지역의 영향을 받아 한성백제 토기가 성립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물론 역방향도 성립한다.

한성백제 양식의 뚜껍이 성립된 이후, 풍납토성에서 뚜껍 턱이 돌출된 경기 서부 지역의 뚜껍이 출토되기도 한다. 출토 유구는 풍납토성 현대연합주택부지 가-16호 수혈(그림 9-1), 가-26호 수혈(그림 9-2)과 미래마을부지 가-1호 수혈(그림 9-3, 9-4)이다.<sup>68</sup> 유구의 공반 유물로 볼 때 풍납·몽촌 2~3단계,<sup>69</sup> 혹은 풍납Ⅱ기로 비정되며,<sup>70</sup> 시기는 4세기 전엽~후엽이다. 풍납토성에서 확인되는 경기 서부 지역 뚜껍은 4세기 당시 두 지역 간 물품 혹은 사람의 이동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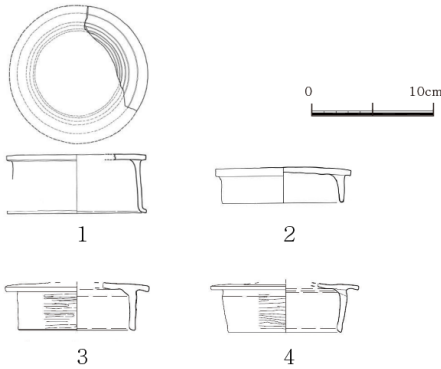
반대로 백제 중앙의 문화가 경기 서부 지역에 진출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이 경우 경기 서부 지역의 소지역별로 백제의 물질문화가 확산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세기 후엽 인천 남부와 시흥 일대에서는 백제 중앙과 토기 문화를 공유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유적, 시흥 은행동·계수동 유적에서는 인천 북부 지역과 달리 승문계 취사용기와 백제토기가 사용된다. 두 유적에서는 이형토기가 출토되어 현지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시흥 은행동·계수동의 경

67 송만영(2016), p. 26.

68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風納土城 I』;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風納土城 XI』; 국립문화재연구소(2012), 『風納土城 XIV』.

69 한지선(2013), pp. 13-16.

70 박중국(2025), 「원삼국~백제 한성기 풍납토성 출토 토기편년 연구」, 『중부고고학회 학술발표회』 2025-2, 중부고고학회, pp. 97-98; p. 112.



[그림 9] 풍납토성 출토 경기 서부 지역  
뚜껑

우 경기 서부 지역 중 유일하게 건축 부재에 해당하는 철장·꺾쇠, 기와류를 사용하여 특별한 위상을 지녔다.<sup>71</sup> 현지 세력의 취락에서 높은 강도로 백제 중앙과 토기문화를 공유하는 현상은 백제가 인천 남부, 시흥 지역의 지역정치체와 먼저 접촉했음을 의미한다.<sup>72</sup>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기존 분구묘의 중심지였던 김포, 인천 북부 일대에서 분구묘가 3세기 후반 이후 쇠퇴하는 현상과 맞물린다. 백제의 진출과 함께 경기 서부 지역의 중심지는 인천 남부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 5. 맺음말

본고는 한강 하류역과 경기 서해안 일대에 위치했던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의 성장 과정과 주변 정치체와의 관계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를 둘러싼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지역을 역사적 주제로 두는 시각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주목할 만한 논점을 제시

71 송만영(2021b), 「한강 하류 분구묘 분포권의 주거와 취락 위계」, 『古文化』 9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 23.

72 박경신(2022), pp. 52-53.

하였다.

경기 서부 지역은 자연지형에 따라 김포·강화, 인천 북부, 인천 남부 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거점에는 분구묘를 조성한 지역정치체가 존재했다. 우선 김포 운양동유적과 인천 연희동유적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양 집단을 비교하고 경기 서부 지역 분구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포 운양동유적은 2세기 중엽부터 대형 분구묘와 함께 금제이식, 다량의 철기류를 부장하며 경기 서부의 성장을 주도했다. 3세기 대에 접어들어 인천 연희동 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고분군이 경기 서부 지역에 형성되는 한편, 운양동 유적은 점차 쇠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철기 부장량은 감소하고 토기 부장과 관련 의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이는 유통 네트워크의 변화 혹은 위계 표현 수단의 변화를 시사한다.

역사학계에서는 경기 서부지역 정치체를 『삼국사기』의 비류 집단이나 『삼국지』의 신분고국과 연결짓는 견해가 다수를 점한다. 특정 유적을 사료상의 특정 소국 혹은 역사적 사건과 1대1로 연결하는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삼국지』 한조에 드러나는 2~3세기 군현과 한 사회 간 역동적 관계는 경기 서부지역 물질문화를 해석할 때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백제 중앙의 일방적인 흡수와 지배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경기 서부 지역정치체를 능동적인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이 주변 정치체와 맺은 다각적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연구에서 심화되어야 할 논점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 정치체 간 네트워크와 백제 중앙과의 상호 교류 양상을 제시하였다. 전자의 경우, 진·변한계 철제 무기류와 홍옥수 구슬의 유통망을 통해 경기 남부 및 충청 곡교천 유역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후자의 경우, 뚜껑의 기형을 통해 백제 중앙(풍납토성)과 경기 서부 지역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백제 국가의 성장 과정은 지역 단위 정치체들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하고 협력하며 만들어낸 역동적인 역사의 산물이다. 따라서 백제를

유일한 주체로 두고 주변 세력들을 객체로 상정하는 시각보다는 각 지역 단위 정치체들의 성장과 소멸 양상을 함께 고려할 때 초기 백제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三國志』, 『三國史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新增東國輿地勝覽』(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서경문화재연구원(2013), 『인천 연희동 유적』.  
서울대학교박물관(2013), 『시흥 오이도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風納土城 I』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風納土城 XI』.  
국립문화재연구소(2012), 『風納土城 XIV』.  
중앙문화재연구원(2010), 『인천 운서동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2013a), 『김포 운양동 유적 II』  
한강문화재연구원(2013b), 『김포 운양동 유적 I』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7), 『시흥 은행동·계수동 유적』.

### 논저

권오영(1995), 「2. 백제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권오영(2017), 「백제고분 출토 유리구슬의 화학조성을 통해 본 수입과 유통」, 『고고학』 16-3, 중부고고학회.  
김기옥(2013), 「IV. 고찰」, 『김포 운양동 유적 I』, 한강문화재연구원.  
김경화(2022), 「인천 - 김포지역 분구묘와 마한」, 『한국학연구』 6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길식(2014), 「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를 중심으로」,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김승욱(2024), 『마한 분구묘의 이해』, 학연문화사.  
김영심(2024), 「대외관계 측면에서 본 3세기 마한사회 연구 현황과 쟁점」, 『한국고대사 연구』 116, 한국고대사학회.  
노중국(1988),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 문경호(2021), 「고려 강도시기 경기만 일대의 주요 포구와 물자 유통」, 『한국의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인천』, 경인문화사.
- 박경신(2022), 「경기 서부지역 (원)삼국시대 지역정치체의 동향」, 『고대 역사속의 부천과 우휴모탁국 학술대회』, 부천시·부천문화원·부천향토문화연구소.
- 박대재(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 박장호(2020), 「중서부지역 진변한계 철기의 변화와 철생산」, 『고문화』 9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박중국(2024), 「원삼국시대 화성 기안리 제철공방의 조성 배경」, 『한국고고학보』 2024-2, 한국고고학회.
- 박중국(2025), 「원삼국~백제 한성기 풍납토성 출토 토기편년 연구」, 『중부고고학회 학술발표회』 2025-2, 중부고고학회.
- 송만영(2016), 「한강 하류 마한 취락의 편년과 전개 과정」, 『崇實史學』 36, 송실사학회.
- 송만영(2021a), 「한강 하류 분구묘 부장 토기의 변화와 의미」, 『韓國上古史學報』 111, 한국상고사학회.
- 송만영(2021b), 「한강 하류 분구묘 분포권의 주거와 취락 위계」, 『古文化』 9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송만영(2021c), 「한강 하류 분구묘 분포권 지역정치체의 동향과 성격」, 『崇實史學』 47, 송실사학회.
- 송만영(2022), 「한강 하류역 분구묘 분포권의 무덤 위계」, 『고고학』 21-1, 중부고고학회.
- 윤선태(2001), 「馬韓의 辰王과 신분고국」, 『百濟研究』 3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윤용구(1998), 「삼국지 한전 대외관계 기사에 대한 일검토」, 『백제연구총서』 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윤용구(2019), 「馬韓諸國의 位置再論」, 『지역과 역사』 45, 부경역사연구소.
- 이용범(2018), 「2~3세기 마한과 진변한의 철제무기 교류의 배경」, 『고고학』 17-1, 중부고고학회.
- 이정빈(2017), 「기리영을 통해 본 마한 諸國과 曹魏」, 『백제학보』 22, 백제학회.
- 이한상(2013), 「김포 운양동유적 출토 금제이식에 대한 검토」, 『김포 운양동 유적 II』, 한강문화재연구원.
- 임동민(2021), 「고대 황해 교섭·교류 항로와 경기만」, 『百濟學報』 38, 백제학회.
- 임동민(2022), 「백제 한성기 해양 네트워크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동민(2023), 「미추홀에서 백제로의 변화」, 『인천 연안의 고대문화와 백제』 인천역사문화총서98, 인천광역시.
- 전미란(2013), 「중서부 해안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고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재윤(2002), 「彌鄒忽의 位置에 대한 再檢討」, 『博物館誌』 4, 인하대학교 박물관.
- 지혜(2019), 「김포·인천지역 마한 분구묘의 시공간적 특성」,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윤환(2013), 「한강 중·하류 유역에 위치한 정치체의 존재양상: 묘제를 중심으로」, 『古文化』 8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한지선(2013), 「漢城百濟期 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 서울·경기권 편년수립을 위하여」, 『중앙고고연구』 12,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한지선(2022), 「원삼국~백제 한성기 시흥 지역 집단의 존재 양상과 변화」, 『규장각』 6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고 접수일: 2026년 2월 2일,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10일

## ABSTRACT

# Development of Local Polities in the Western Gyeonggi Region and Their Relations with Neighboring Regions

Han, Jisun\*

This study examines the growth process of regional polities in the western Gyeonggi region, located along the lower reaches of the Han River and the west coast of Korea,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surrounding polities. By reviewing existing scholarship on these regional polities, this paper highlights the necessity of viewing the region as a historical subject and suggests key points for future discussion.

The western Gyeonggi reg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based on natural topography—Gimpo-Ganghwa, Northern Incheon, and Southern Incheon—each hosting regional polities that utilized mounded burials (*bungu-myō*). This study primarily analyzes the Unyang-dong site in Gimpo and the Yeonhui-dong site in Incheon to compare the two groups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ounded burials in the region. The Unyang-dong group spearheaded the growth of the western Gyeonggi region from the mid-2nd century, interring prestige goods such as gold earrings and a significant quantity of ironware into large-scale mounded

—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rials. In the 3rd century, while several cemetery sites began to be formed across the western Gyeonggi region, including the Yeonhui-dong site, the Unyang-dong site showed a gradual decline. Furthermore, a chronological trend was identified in which the quantity of iron burial goods decreased while pottery offerings and related rituals increased, suggesting a shift in exchange networks or methods of status expression.

In historical studies, the prevailing view associates these western Gyeonggi polities with the Biryu group in *Samguk Sagi* (三國史記) or Sinbungo-guk in *Sanguozhi* (三國志). However, one must be cautious of simplistic interpretations that establish a one-to-one correspondence between specific archaeological sites and the small states or historical events recorded in written sources. Nevertheles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commanderies and Han (韓) society during the 2nd and 3rd centuries, as revealed in the “Han” section of *Sanguozhi*, can serve as a valid framework for interpreting the material culture of the western Gyeonggi region. It is also necessary to move beyond the perspective of unilateral absorption and centralized consolidation by Baekje, instead positioning the western Gyeonggi polities as active agents to clarify their multifaceted relationships with surrounding power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two areas for further research: the networks between regional polities in the southern Gyeonggi and Chungcheong regions, and the patterns of mutual exchange with central Baekje.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was confirmed that the region was connected to southern Gyeonggi and the Gokgyo-cheon Basin of Chungcheong through distribution networks of Jinhan and Byeonhan style iron weapons and agate beads.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pottery lids suggest the possibility of mutual influence between

central Baekje and the western Gyeonggi region.

The growth of the Baekje state was a product of a dynamic history shaped by regional polities competing and cooperating through their respective networks. Therefore, rather than viewing Baekje as the sole subject and peripheral forces as mere objects, the reality of early Baekje history can be better understood by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 patterns of growth and decline of each regional polity.

**Keywords** Baekje, Western Gyeonggi Region, Mounded Burials (*Bungumyo*), Network